

호남기반 소형항공사 에어필립 '생사기로'

오너리스크 등 폐업 위기 몰려 기업 회생절차 신청 직원 250여명...400억 신규 투자 의향서 체결 주장

‘오너리스크’ 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에어필립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호남기반 신규 소형항공사인 에어필립은 모기업인 필립에셋 회장이자, 에어필립 대표였던 엄일석씨가 검찰에 구속된 이후 ‘저비용항공사(LCC) 신규항공운송면허 신청’까지 반력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관련한 직원수만 250여명에 이른다.

7일 광주지법과 에어필립 등에 따르면 에어필립은 지난 5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어필립은 법원에 기업 회생안에 투자자의 투자 일정·금액 등 상세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기업 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내용도 담겨있다.

에어필립측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투자자들도 에어필립이 기업회생 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박길성)는 채권자 조사와 회사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 검토, 채권단 동의의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지, 회사를 청산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계획안 인가가 나면 2~3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는다.

에어필립은 다만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정보전 등에 묶여 있는 점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에어필립은 구속된 엄일석 회장 54%, 필립에셋 21% 등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는

데, 검찰이 엄 회장 등 필립에셋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을 추정 보전했기 때문이다.

에어필립측은 감사(자본감소)를 통해 임 회장측 지분을 줄인 뒤, 신규발행 주식을 제3자(신규투자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는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되었거나 회사 분할,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 때도 이뤄진다.

에어필립은 “법원 기업회생 신청과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신규 투자회사는 M&A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에어필립은 지난해 광주·무안공항을 기반으로 제주·김포 등 국내선에 이어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등 국제선에 취항했으나, 최근 자금난 등으로 모두

노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25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도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자진 퇴사했으며, 30여명이 남아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에어필립은 운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한 항공기 4대 중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에어필립은 향후 기업회생 절차 기간 중 신규 투자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50억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억~5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면 올 상반기 중으로 항공기 2대의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어필립의 한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에 의해 M&A가 끝나면 에어필립은 새로운 주인에 의한 건설한 경영 시스템이 들어설 것”이라며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직원 복귀와 임금 미지급 문제 등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회생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따뜻한 봄을 맞아 제3세대 쏘울 부스터 시승 이벤트를 마련. 이 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쏘울 부스터 시승 이벤트 참가고객 모집

16일까지 신청...50명 선발

기아자동차는 봄을 맞아 쏘울 부스터 시승 이벤트 참가고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파워풀한 동력성과 하이테크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 쏘울 부스터의 우수한 상품성을 관심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시승 신청은 8일부터 16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당첨자는 17일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안내가 이뤄진다. 기아차는 신청자 중 50명을 선발, 오는 26~29일 3박4일간 주말 시승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승자 전원에게 쏘울x속스포드 블록 경품을 제공한다.

쏘울 부스터는 2008년 1세대, 2013년 2세대를 거치며 6년만에 선보인 3세대 모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최악 꼴불견 면접 지각자”

잡코리아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최악 꼴불견 지원자로 ‘면접 지각자’를 꼽았다. 반면, 면접에서 호감을 얻는 에티켓 1위에는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질문하기’를 꼽았다.

7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인사담당자 479명을 대상으로 ‘면접 에티켓’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 45.7%가 ‘면접 광탈(광속 탈락)’을 부르는 최악의 꼴불견 지원자 유형(복수응답)으로 ‘면접에 늦는 늦장형 지원자’를 꼽았다. 이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성의부족형(35.3%),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기력형(29.2%),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산만형(28.8%), 지원서나 면접답변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과시형(17.5%) 등의 순이었다.

면접장에서 광탈 대신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에티켓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면접 에티켓 1위는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기(40.1%, 응답률)였다. 다음으로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기(35.7%), 모르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기(33.4%) 순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보해양조 ‘젊은인재 취업특강’ 성료...취업준비생 큰 호응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전남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젊은인재 취업특강’이 지난 6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날 조선대학교 입학실에서 열린 젊은인재 취업특강은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취업특강과는 달리 강연자와 청중이 대화하는 형태로 열린 취업준비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강은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진행됐다. 특강에 참가한 취업준비생들은 기업문화와 복지제도를 포함해서 취업준비생일 때 꿈꾸던 사회생활과 실제 회사생활의 차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등 평소 궁금했던 점을 다양하게 물었다.

입사한 지 1년 안팎인 취업선배들은 얼마 전까지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생활했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건넸다.

젊은인재 취업특강 참가자들은 기아자동차와 한국전력공사, 국민은행과 옌코 코

리아 등 기업과 공기업, 금융권과 외국계 기업 등 여러 분야의 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듣고 비교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수는 홍보대외협력실장은 “젊은인재 취업특강은 보해가 광주전남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묻고 답을 듣는 행사였다”며 “취업특강을 포함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해양도시가스 ‘해양에너지’로 새 출발



호남을 대표하는 에너지회사가 성장한 해양도시가스가 제2 도약을 위해 ‘해양에너지’로 새롭게 출발한다.

7일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사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해양에너지’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날 4일 신규 사명에 대한 변경 등기를 완료했다.

새로운 사명인 ‘해양에너지’는 회사 전체 임직원의 공모와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광주·전남지역을 상징하는 ‘해양’이라는 역사적 지명과 종합에너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로 ‘에너지’를 결합해 사용하게 됐다.

해양에너지는 환경시대 청정에너지로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높여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힘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양에너지의 새로운 CI는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라는 슬로건 아래, 무한한 가치 실현과 지속 성장, 자연과 인류의 긴밀한 공존을 표현하고자 파비우스 CI로 향상화했다.

김형순 대표이사는 “기존 도시가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명을 ‘해양에너지’로 변경했으며, 새로운 CI와 비전을 임



직원 스스로 내재 화해 한마음으로 희망차고 밝은 미래 모습을 만들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창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도시가스에서 사명을 바꾼 ‘해양에너지’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광주시와 광주 인근 전남지역 1개 시·7개 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85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	
2 8 23 26 27 44	1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885,006,786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37,398,237	90
3 5개 숫자 일치	1,667,910	2,018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5,158
5 3개 숫자 일치	5,000	1,787,511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기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